

월명동

- 작성일: 2010년 7월 10일(토)
- 작성자: 김선명 (마산 주사랑교회, 청년부)

7월10일 의학부 수련회 때 월명동 자연성전에서 기도하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월명동에 관한 시를 달라고 간구했고 이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월명동

- 예수님 시

성지땅 월명동은
이 시대 의인들을 품은
내 아버지의 강한 팔과 가슴팍.

성지땅 월명동은
이 시대 성약역사 잉태한
내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

성지땅 월명동은
저 영계 내가 준비한 처소를
이 땅에 옮겨 놓은 그림자.

성지땅 월명동 바람 소리는
내 아버지의 잔잔하고 따뜻한 숨소리.

성지땅 월명동 밤하늘 별빛은
내 어머니 옷자락의 금은 빛 보석.

성지땅 월명동은
이 시대 아담, 하와가 사는 에덴동산.

성지땅 월명동은
내 사랑하는 자가 태어나 자란 곳.

성지땅 월명동은
나와 내 사랑하는 애인이
연분 맺어 한평생 살자고 약속한 곳.

성지땅 월명동은

나와 내 애인이 사랑 바람이 나
세상에 알려진 소문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이 시대 나의 신부들이 태어나 자라나는
다정한 요람.

성지땅 월명동은
이 시대 나의 신부 기르는 신부학교.

성지땅 월명동은
하나님이 예언한 전설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이 지구상 사탄이 올 수 없는 유일한 땅.

성지땅 월명동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은혜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땅.

성지땅 월명동은
희망 없는 인생들, 희망을 세우는
희망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인천사, 영천사 힘들면 쉬었다 가는
소생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이 지구촌 모든 인생들이 와야 하는
영혼의 고향.

성지땅 월명동은
이 지구촌 한 마을의 하나님의 교회.

성지땅 월명동은
선생의 피와 땀이 서린 땅.

성지땅 월명동은

섭리사 모든 자들의 자랑의 땅.

이 세상 끝날 까지 영원할 찌어다.

성지땅 월명동은
이 민족 영원히 자랑할 역사의 땅.

성지땅 월명동의 기상 높은 돌 조경은
이 시대 내 사랑하는 애인이 세워준
나의 자존심.

성지땅 월명동은
내가 내 애인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성지땅 월명동은
내 애인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

성지땅 월명동은
세상의 패역에 상처 받은 내 마음 위로 받는
위로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지친 내 마음 힘을 나게 하는 안식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지상, 천상영인들 모아
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땅.

성지땅 월명동은
이 역사 시작하기 위해
내 사랑 키워온 성장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내 애인 나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결심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내 애인과의 추억으로
미소 짓게 만드는 추억의 땅.

성지땅 월명동은
하나님의 자연성전,
영원히 육의 세계에 존재할
하나님의 지상 천국.

아! 성지땅 월명동.